

누군가에게 보내는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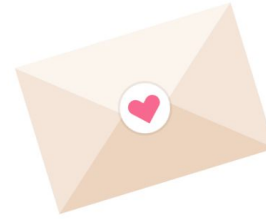
누군가
에게
보내는
편지

'천권도서관인스토리' 시리즈는 한 지역 사람들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기록이기도 하다.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같이 울고 웃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느새 책으로 엮여 세상에 나왔다. 일상의 사소한 이야기들이 소중하게 포장되어 책이 되었다. 우리 집의 작은 화분이 책에 실리는가 하면, 어린 시절의 빛바랜 가족사진이 현재의 이야기가 되어 다시금 생명을 얻기도 했다. 남에게 쉽게 터놓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웃고, 눈물을 짓고, 생각에 잠긴 흔적이 책으로 묶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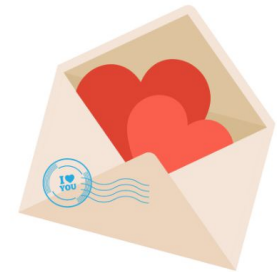
'천권도서관인스토리'는 다만 지나간 것에 그치지 않는다. 봉사과 베품의 이야기는 현재형으로서,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미래형으로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새로운 이야기를 낳을 것이다.

아무리 힘들고 외롭다 할지라도 곁에 있는 이가 손잡아준다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천권도서관인스토리' 시리즈는 한 번의 시도로 끝나지 않고, 천 개의 손을 함께 잡는 작업이다.

동네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천권도서관인스토리' 시리즈를 통해 우리 모두의 위대한 시도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김선화
김은숙
김정자
김희숙
김희연
송혜숙
신들봉
우정현
이미형
이재선
임숙정
정귀자





김은숙님이
20살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

20살 은숙에게

잘 지내고 있지?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어?

공부는 왜 그렇게 싫어하고 있는 거지?

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소개해줘요!

이제 시골 마을로 이사를 오려고 하는데 정말 걱정돼요!

이제 친구들과 헤어질 거예요. 정말 아쉬워요!

'꿈, 열, 돈, 사랑, 건강' 꼭 갖게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앞으로 할 계획이 있으세요?

앞 시골이 좋아해요!

이제부터 정말 내게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어요!

이제부터 정말 친구와 헤어질 거예요!

이제부터 정말 친구와 헤어질 거예요!

앞으로 할 계획이 있으세요?

앞으로 할 계획이 있으세요?

앞으로 할 계획이 있으세요?